

국어 수능특강

적용학습 기출로 보기 <EBS변형문제 1>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볼, 불)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2. 아래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

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3. 다음은 ‘치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다¹ **동** 【…을】

- ㉠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계 닿거나 부딪게 하다.
- ▶ 날아오는 공을 치다 / 주먹으로 얼굴을 치다.
- ㉡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다.
- ▶ 손뼉을 치다 / 피아노를 치다.
- [속담] 치러 갔다가 맞기도 예사 :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러 갔다가 도리어 요구를 당하는 일도 흔히 있다는 말.

치다² **동** 【…을】

- ㉢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
- ▶ 양을 치다 / 삼촌은 돼지를 쳐서 생계를 유지한다.
- ㉣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
- ▶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제법 무성하다.

- ① ‘치다¹’과 ‘치다²’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겠군.
- ② ‘치다¹’ ㉠ 뜻의 유의어로는 ‘때리다’가 가능하겠군.
- ③ ‘치다¹’의 속담은 ‘치다’와 ‘맞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④ ‘치다²’ ㉢ 뜻을 보니 ‘아이를 기르다.’의 의미로 ‘아이를 치다.’를 쓸 수는 없겠군.
- ⑤ ‘치다²’ ㉣ 뜻의 용례로 ‘농부가 낮으로 잔가지를 쳐 냐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4.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표현하는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보 기> —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을 때, “밥 먹으러 가자.” 처럼 청유형 어미 ‘-자’ 를 사용하여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벌써 점심시간이네.” 처럼 평서형 어미 ‘-네’ 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①	(귀가한 후 누나에게) 동생: <u>아, 목 마르다.</u> 누나: <u>자, 물 여기 있어.</u> (추운 교실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②	선생님: <u>㉠창문이 열렸네.</u> 학생: <u>네, 닫을게요.</u>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
③	행인 A: <u>㉡구청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u> 행인 B: <u>오른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돼요.</u>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④	언니: <u>㉢너 나한테 맡겨 둔 옷 있니?</u> 동생: <u>알았어, 내 옷 입을게.</u> (추운 겨울, 실내로 들어오는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⑤	제자: <u>선생님, ㉣여기 따뜻한 차입니다.</u> 선생님: <u>그래, 잘 마실게.</u>

5.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 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호: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보’ 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 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 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지기: ‘그것을 지키는 사람’ 의 뜻을 더하는 접사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 의 뜻을 더하는 접사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 의 뜻을 더하는 접사
---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 라는 말을 만들었어.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 라는 말을 만들었어.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 라는 말을 만들었어.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 라는 말을 만들었어.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 라는 말을 만들었어.

6. 아래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나는 ㉢그쪽에서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 이걸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은 ‘나의’ 를 줄인 말이겠군.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③ ㉥은 ㉡과 ㉣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⑤ ㉥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 로 바꿔야 해.

7. <보기 1>의 ㄱ~ㄷ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a~c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ㄴ. 단어 A와 B가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

ㄷ. 단어 A가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보 기>

a. [설령탕을 시켜 머거라]라는 말만 들어서는 설령탕을 식혀 먹으라는 뜻인지, 주문해 먹으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b. [그 팀이 이연패를 했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그 팀이 두 번 연속해 졌다는 뜻인지, 두 번 연속해 우승했다는 뜻 인지 잘 모르겠어.

c. [가스미 아프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신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뜻인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 | | | | |
|---|---|---|---|
| | ㄱ | ㄴ | ㄷ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b | c | a |
| ⑤ | c | a | b |

8.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성을 바꾼 경우 (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 (불, 불) • 종성을 바꾼 경우 (밤,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눈</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길게 발음할 때</td> <td style="text-align: center;">짧게 발음할 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눈이 펑펑 내린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td> </tr> </table>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펑펑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펑펑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9.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자료)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ㄴ ‘초성 +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며, 소)

ㄷ ‘중성 +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알, 억, 영, 완)

ㄹ ‘초성 + 중성 +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10. 아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학생: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선생님: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조음 위치 조음 방식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ㅂ	ㄷ	ㄱ
비음	ㅁ	ㄴ	ㅇ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ㄱ’이 ‘물’의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지요.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입는[임는]’, ‘뜯는[뜨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학생: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이/가 변했네요.

- 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
- 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
- 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
- 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
- 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

11. 다음의 단모음 체계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폐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반개모음)	ㅔ	ㅕ	ㅑ	ㅊ
저모음(개모음)	ㅚ		ㅓ	

<보 기>

수정: **네**가 잘 했어야 했는데.

민기: 뭐? 내가 잘 했어야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수정: 아니. 니가 못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민기: 아아,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네**가 잘 했어야 했는데.’ 로 들었어. 그런데 ‘니가’ 는 잘못된 표현 아니야?

수정: 맞아. 그런데 ‘내’ 와 ‘네’ 가 혼동되니까 현실적으로 ‘니가’ 를 사용하기도 하지.

민기: 아, 그렇구나. ‘내’ 를 발음할 때는 (㉠)

- ① ‘네’ 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야겠구나.
- ② ‘네’ 와 달리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겠구나.
- ③ ‘네’ 보다 혀의 높이를 더 높아지게 해야겠구나.
- ④ ‘네’ 와 달리 혀의 최고점을 앞에 놓아야겠구나.
- ⑤ ‘네’ 와 달리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겠구나.

12. 다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 보자.

부엌, 간, 옷, 빛, 달, 섬, 앞, 창

(1)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 (㉠)

(2) 음절 끝의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지 알아보자. (㉡)

(3)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정리해 보자. (㉢)

(4) (3)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들을 더 찾아 보자. (㉣)

(5)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을 정리해 보자. (㉤)

① ㉠: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부엌, 간, 달, 섬, 창’ 이다.

② ㉡: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에는 바뀌지 않는다.

③ ㉢: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ㄱ, ㄹ, ㅂ’ 중 하나로 바뀐다.

④ ㉣: ‘ㅃ’ 과 ‘ㅆ’ 을 음운 변동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⑤ ㉤: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ㄹ, ㄴ, ㄹ, ㅁ, ㅂ, ㅅ, ㅇ’ 만 발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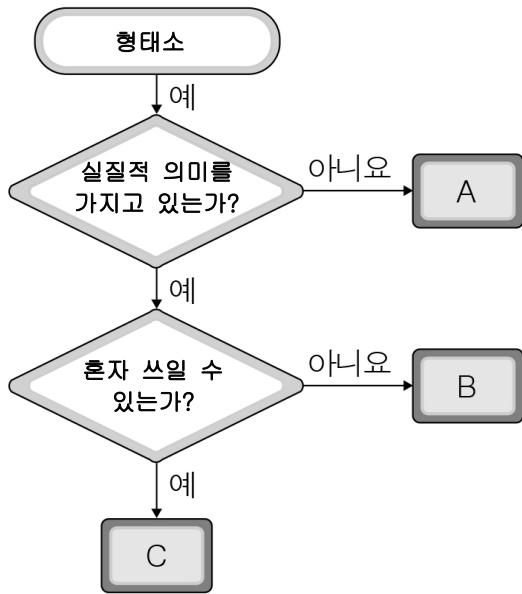
13. 아래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국어에는 거센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밥하고[바파고] 떡이다.
- ㉡ 옷에 흠까지[흑까지] 묻히고 시내를 쏘다녔다.
- ㉢ 우리는 손을 잡고[잡꼬] 마냥 즐거워하였다.
- ㉣ 그는 고전 음악을 즐겨 듣는다[든는다].
- ㉤ 칼날[칼랄]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① ㉠의 예 : 먹히다, 목걸이
- ② ㉡의 예 : 값싸다, 닭똥
- ③ ㉢의 예 : 굳세다, 숨이불
- ④ ㉣의 예 : 겁내다, 맨입
- ⑤ ㉤의 예 : 잡히다, 설날

14. 다음의 탐구 과정에 따라 (보기)의 ㉠~㉣을 분류하고자 한다. A~C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북두칠성은 ㉠ 어느 계절에나 북쪽 밤하늘을 보면 쉽게 찾을 수 ㉡ 있다. 북두칠성을 흔히 국자㉢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국자라면 국을 쏟을 때 국이 흐를 마지막 두 별을 잇㉣는 직선상에 있는 별 중 가장 밝고, 두 별의 간격의 다섯 배쯤에 있는 별을 발견할 것이다. 그 ㉢ 자리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밤하늘의 북극성이다.

- | | A | B | C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15. 아래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근은 단어 분석 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가리킵니다.

용언	어간	어근
숫다(단일어)	숫-	숫-
치숫다(파생어)	치숫-	숫-
쌔숫다(합성어)	쌔숫-	쌔, 숫-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용언이 단일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세 단어의 어간과 어근을 분석해 볼까요?

용언	어간	어근
줄이다	줄이-	㉠
힘들다	힘들-	㉡
오가다	오가-	㉢

	㉠	㉡	㉢
①	줄이-	힘들-	오가-
②	줄이-	힘들-	오-, 가-
③	줄-	힘들-	오가-
④	줄-	힘, 들-	오-, 가-
⑤	줄-	힘, 들-	오가-

16.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호: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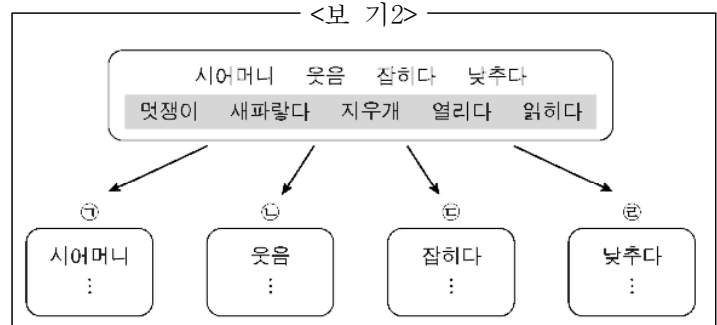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17.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와 같이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1>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음.
- 예) 명사 ‘어머니’에 ‘시-’가 붙어 명사 ‘시어머니’가 된다.
- ㉡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짐.
- 예) 동사 ‘웃다’의 ‘웃-’에 ‘-음’이 붙어 명사 ‘웃음’이 된다.
- ㉢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짐.
- 예) ‘잡다’에 ‘-히-’가 붙어 ‘잡히다’가 되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와 같은 문장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처럼 바뀐다.
- ㉣ 위의 ㉡과 ㉢ 모두에 해당함.
- 예) 형용사 ‘낮다’에 ‘-추-’가 붙어 동사 ‘낮추다’가 되면 ‘방 온도가 낮다’와 같은 문장이 ‘내가 방 온도를 낮추다’처럼 바뀐다.



- ①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에 들어간다.
- ② ‘파랗다’에 ‘새-’가 붙은 ‘새 파랗다’는 ㉠에 들어간다.
- ③ ‘지우다’의 ‘지우-’에 ‘-개’가 붙은 ‘지우개’는 ㉡에 들어간다.
- ④ ‘열다’의 ‘열-’에 ‘-리-’가 붙은 ‘열리다’는 ㉢에 들어간다.
- ⑤ ‘읽다’의 ‘읽-’에 ‘-히-’가 붙은 ‘읽히다’는 ㉣에 들어간다.

18. (보기)의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 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 와 비교해 보자.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 오가는 사람이 많다.

‘오고 가다’ 라는 구는 단어 ‘오다’ 의 어간 ‘오-’ 에 연결 어미 ‘-고’ 가 결합하여 ‘가다’ 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 는 ‘뛰다’ 와 ‘가다’ 의 ㉠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 는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 와 차이가 있다.

- ① 꿈꾸다 ② 돌아서다
- ③ 뒤섞다 ④ 빛나다
- ⑤ 오르내리다

19. 아래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결합하는 어근은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원래의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데, 의미의 변화는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에 따라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양상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형태 변화	의미 변화	
+	-	... ㉠
-	+	... ㉡
* ‘+’: 변화 있음. ‘-’: 변화 없음.		

- ① ㉠: 상황이 나빠진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② ㉠: 사람의 안팎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 ③ ㉠: 우리 집은 오랫동안 마소를 길렀다.
- ④ ㉡: 서너 명이 모여 모듬을 만들었다.
- ⑤ ㉡: 소나무의 꽃은 5월에 핀다.

20.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 <보 기1> —

(문장)

- 아침에 하는 ㉠ 달리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 달리기 시작했다.

(설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 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 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 <보 기2> —

- 그는 멋쩍게 (가)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그 가수는 현란한 (나)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라) 그림.” 이라고 썼다.

- ① (가), (나) ② (가), (라)
- ③ (나), (다) ④ (나), (라)
- ⑤ (다), (라)

21. 아래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용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3점]

품사 분류 기준

- 형태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
-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예문

- 호수가 깊다.
-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기준	분류 (* /는 분류의 경계를 표시함.)
①	형태	깊다, 깊이 / 호수, 가, 강, 의, 는, 누구, 도, 모른다
②	기능	깊다, 모른다 / 호수, 강, 깊이 / 누구 / 가, 의 / 는, 도
③	기능	깊다, 모른다 / 호수, 강, 깊이, 누구 / 가, 의, 는, 도
④	의미	깊다, 깊이 / 모른다 / 호수, 강 / 누구 / 가, 의, 는, 도
⑤	의미	깊다 / 깊이 / 모른다 / 호수 / 강 / 누구 / 가 / 의 / 는 / 도

22. 밑줄 친 부분이 아래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숟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냅다 도망쳤다.

23. 아래의 밑줄 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용언들은, 그 기본형은 같지만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활용을 해 보면 하나는 규칙,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함으로써 두 용언의 활용 형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음이의 관계의 두 용언이 각각 서로 다른 단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① 친구가 병이 났다.
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났다.
- ② 벽에 바른 벽지가 올다.
시험에 진 어린이가 올다.
- ③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
어머니께서 빵을 굽다.
- ④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약속 장소에 이르다.
- ⑤ 장작이 벽난로에서 타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

24. 아래에 제시된 국어사전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과 「조사」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1) ①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막내는 큰형과 닮았다. / ㉠

②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나는 방에서 동생과 조용히 공부했다. / ㉡

③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
㉢ 그는 거대한 폭력 조직과 맞섰다.

(2)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닭과 오리는 동물이다. / 책과 연필을 가져와라.

㉣ 유의어 하고, ㉣

㉣ 형태 정보 받침 없는 체언 뒤에는 ‘ ㉣ ’ 가 붙는다.

- ① ㉠에는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를 넣을 수 있다.
- ② ㉡에는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를 넣을 수 있다.
- ③ ㉢에 들어갈 말은 ‘격 조사’이다.

- ④ @에 ‘이랑’ 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와’ 이다.

25. 아래를 바탕으로 ‘주어’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난 토요일에 ㉠ 사촌 동생이 왔다. 뭘 할까 고민하다 ㉡ 사촌 동생에게 미술관에 가자고 했다. ㉢ 지하철이 있었지만, 한 정거장이라 걸어가기로 했다.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하시며 ㉣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다. 걷다 생각해 보니, ㉤ 우리가 함께 노는 것도 오랜만이였다. 다들 바빠서인지 ㉥ 친척도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 ① ㉠, ㉡, ㉣을 보니, 주어는 ‘무엇이 어찌한다/어떠하다’ 에서 ‘무엇이’ 에 해당하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③ ㉢을 보니, 문맥상 주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는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자음 뒤에서는 ‘이’ , 모음 뒤에서는 ‘가’ 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군.
- ⑤ ㉤을 보니, 체언뿐 아니라 명사절도 주어가 될 수 있군.

2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문장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1>

문장의 성립을 위해서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 라고 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를 탐구해 보자.

㉠ 윤아는 ㉡ 맑은 ㉢ 하늘을 좋아한다.

서술어

[탐구 과정]

(1) ㉠이 없을 경우: ‘좋아한다’ 의 주체(주어)가 빠져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이 없을 경우: ‘하늘’ 을 꾸며 주는 말(관형어)이므로, 문장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이 없을 경우: ‘윤아’ 가 좋아하는 대상(목적어)이 빠져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탐구 결과]

‘좋아한다’ 는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보 기2>

ㄱ 희선이는 맛있는 빵을 먹었다.

ㄴ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 ① ㄱ은 ‘희선이는’을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 ② ㄴ은 ‘빨간’과 ‘장미꽃이’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 ③ ㄱ의 ‘먹었다’와 ㄴ의 ‘피었다’는 모두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④ ㄱ의 ‘맛있는’과 ㄴ의 ‘활짝’은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다.
- ⑤ ㄱ의 ‘먹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ㄴ의 ‘피었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27. 아래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 그 모습이 참고우셨다.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28. 아래의 예를 바탕으로 부사어의 특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3점]

㉠ 엄마와 그녀는 닮았다. / *그녀는 닮았다.
 ㉡ 그는 밥을 안 먹었다. / *그는 안 밥을 먹었다.
 ㉢ 아빠가 용돈을 아이에게 주었다. / *아빠가 용돈을 주었다.
 ㉣ 겨우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야? / 하나를 겨우 만들었다는 거야?
 ㉤ 경제 및 문화가 발달해야 선진국이다. / *경제 문화가 및 발달해야 선진국이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을 보니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중에는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가 있군.
- ② ㉡을 보니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는 수식하는 문장 성분 앞으로 위치가 고정되는군.
- ③ ㉢을 보니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 되기도 하는군.
- ④ ㉣을 보니 체언을 꾸며주던 부사어가 위치를 이동하면 수식하는 성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군.
- ⑤ ㉤을 보니 단어를 이어주는 부사어는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없군.

정답 및 해설

기출로 보기 변형문제 1

1) <답> ②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운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므로, 초성, 중성, 종성 중의 어디에 위치하든 그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바꿈에 따라 그 음운이 포함된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밭’의 초성을 ‘ㄷ’이나 ‘ㅅ’으로 바꾸거나, ‘밭’의 중성을 ‘ㅅ’나 ‘ㅌ’로 바꾸거나, ‘밭’의 종성을 ‘ㅂ’이나 ‘ㅇ’으로 바꾸면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비분절 음운인 음장(音長) 역시 그 길이의 길고 짧음을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다.

- ① 음운 중 자음, 모음과 같은 분절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ㄴ)의 비분절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없다. 이는 (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 ③ 음운이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하는 것은 음운의 변동과 관련되는데, 이는 (ㄱ), (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음운의 출현이 위치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ㄱ), (ㄴ)의 활동과도 관련이 없다.
- ⑤ 음운은 음운 교체를 통해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ㄱ), (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2) <답> ③

실제의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목적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탐구해 보는 문항이다. ㉠의 ‘우유나’처럼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된 것도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므로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럼, 우유나 마실까?”라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①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에서 ‘먹다’는 동작을 나타내고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에서 ‘보다’ 역시 동작을 나타낸다. 두 문장에서 ‘빵을’과 ‘모습을’이라는 목적어는 각각 ‘먹다’와 ‘보다’라는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 ②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에서 ‘빵을’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놓여 있어서 목적어의 전형적인 자리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에서 ‘그런 내 모습’이라

는 목적어는 주어 앞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목적어의 전형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는 서술어 ‘먹었다’의 속성상 ‘빵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는 서술어 ‘고우셨다’의 속성상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 이로 보아,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빵을’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빵’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고, ‘우유를’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우유’ 다음에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다. 이로 보아,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답> ⑤

동음이의어의 의미를 탐구해 보는 문항이다. ‘농부가 낮으로 잔가지를 쳐 냈다.’에서 ‘쳐(치다)’는 ‘날이 있는 물체를 이용하여 물체를 자르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치다2’ ㉠ 뜻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의 용례로 ‘농부가 낮으로 잔가지를 쳐 냈다.’를 추가할 수는 없다.

- ①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가리키며, 사전에서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된다. ‘치다1’과 ‘치다2’는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되었다는 점에서 동음이의어라고 말할 수 있다.
- ② ‘때리다’는 ‘손이나 손에 든 물건 따위로 아프게 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계 닿거나 부딪게 하다.’라는 의미와 유사하다.
- ③ ‘반의 관계’란 뜻이 반대되는 의미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맞다’는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가해져 몸에 해를 입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치러 갔다가 맞기도 예사’의 ‘치다’와 ‘맞다’는 반의 관계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 ④ ‘치다2’ ㉠의 뜻은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이므로, 대상이 가축이나 가금이다. 따라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는 ‘치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

4) <답> ③

이 문항은 담화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화자의 의도 표현 등과 관련지어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③의 “구청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라는 의문문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라는 담화 상황으로 볼 때, 길을 묻는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발화로 볼

수 있다.

① ㉠은 귀가한 후 누나에게 발화한 것으로, 물을 달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추운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발화한 것으로, 창문이 열린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창문을 닫게 하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의문형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생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빌려주기 싫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추운 겨울에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발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차를 드세요.’ 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답> ⑤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여러 파생 접사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한과장이’ 라는 새말을 만들었는데, ‘-장이’ 는 ‘그 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 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한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쓰기에 적합하다.

① ‘-지기’ 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 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꾸러기’ 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 의 의미이므로, ‘그것을 자주 하다.’ 의 의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멋있게 잘하다.’ 의 의미로 ‘-꾸러기’ 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장이’ 는 특별한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에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6) <답> ②

㉠ ‘그쪽’ 은 아버지의 책을 부탁받는 당사자이다. ㉡ ‘당신’ 역시 같은 대상이다.

① ㉠ ‘내’ 는 ㉡ ‘나’ 와 같은 1인칭 대명사이다. ㉠ ‘내’ 는 ‘가’ 라는 주격 조사 앞에 쓰이고, ㉡ ‘나’ 는 ‘은/는’ 앞에 쓰인다. ‘내’ 가 ‘나의’ 의 줄인 말로 쓰이는 경우는 ‘내 물건’ 과 같은 사례에서이다.

③ ㉢ ‘우리’ 는 바로 아버지의 책을 부탁하고 있는 ‘나’ 를 포함한 ‘나의 형제자매들’ 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 ‘나’ 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 ‘그쪽’ 은 내가 부탁하고 있는 당사자이기에 ‘우리’ 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할 때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반드시 대명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대상이 혼동되지 않고 분명할 때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 ‘아버지’ 를 ‘당신’ 이란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도 있지만, 현재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바꾸어 쓸 필요는 없다.

⑤ ㉣ ‘당신’ 을 ‘자기’ 로 바꾸면 오히려 높임법에 맞지 않게 된다. ‘당신’ 이 재귀 대명사로 쓰일 때에는 높임의 의미가 담기므로 현재의 ‘당신’ 이 높임법에 맞는 것이다.

7) <답> ③

a에서 표기와 의미가 다른 ‘식혀’ 와 ‘시켜’ 는 모두 [시켜]로 소리 난다. b에서 [이연패]는 ‘이연패’ 로 표기되며, 그 의미는 ‘두 번 연속 패배함 [이연패, 二連敗]’ 과 ‘두 번 연속 우승을 차지함 [이연패, 二連覇]’ 의 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는 다른 경우이다. c에서 [가슴미]는 ‘가슴이’ 로 표기되며, 이때 ‘가슴’ 은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중심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고 심정을 뜻하는 확장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8) <답> ②

① (ㄱ)은 문자로 표기가 가능한 분절 음운이지만, (ㄴ)은 소리의 길이로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비분절 음운이다.

② (ㄱ)은 국어 음절을 이루는 초성, 중성, 종성의 음운이 바뀔때 따라 그 뜻도 달라지는 것을 보여 준다. (ㄴ)은 길게 발음하는 ‘눈:[눈]’ 과 짧게 발음하는 ‘눈[眼]’ 이 그 의미가 다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고 볼 수 있다.

③ (ㄱ)과 (ㄴ)은 음운이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ㄱ)과 (ㄴ)은 음운이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ㄱ)과 (ㄴ)을 통해서 음운이 감정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9) <답> ①

① 우리말 음절의 초성에는 자음이 둘 이상 오지 못한다. 제시된 자료 중 ‘끼’, ‘딸’ 의 ‘ㄱ’, ‘ㄷ’ 은 각각 된소리에 해당하는 하나의 자음이다. 참고로, 영어에서는 ‘strike’ 처럼 초성에 ‘str’ 와 같이 둘 이상의 자음이 오기도 한다.

② 중성에는 모음이 오는 것을 ㄱ~ㄹ 유형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ㄷ과 ㄹ 유형에서 종성에는 자음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ㄱ 유형은 초성과 종성이 없이 종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 ㄷ 유형은 초성이 없는 음절, ㄴ 유형은 종성이 없는 음절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ㄱ~ㄹ 유형 모두에 종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모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음성과 음운의 차이

음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의 음성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음성을 사람들은 음성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여 그 부분을 같은 기호로 인식한다. 즉 음성은 모두 다르더라도 음성의 특징적 부분을 통해 받아들이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같은 음운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를 음운이라고 한다.

10) <답> ①

‘식물[싱물]’, ‘입는[임는]’, ‘뜯는[띯는]’에서는 각각 ‘ㄱ, ㅂ, ㄷ’이 ‘ㅇ, ㄴ, ㄹ’과 만나 각각 ‘ㅇ, ㄴ, ㄹ’으로 변한다.

① 제시된 자음 분류표를 살펴보면,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변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뒤 자음인 ‘ㅇ, ㄴ, ㄹ’의 조음 방식은 모두 비음이다. 이들은 앞 음운의 발음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③ 두 자음이 만나 한 자음이 다른 자음에 영향을 준 것이므로 둘 중 하나의 자음만 조음 방식이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앞 자음인 ‘ㄱ, ㅂ, ㄷ’이 각각 ‘ㅇ, ㄴ, ㄹ’으로 바뀌었으나, 이는 조음 방식의 변화이지 조음 위치의 변화인 것은 아니다. ‘ㄱ’은 같은 조음 위치(연구개음)에 속하는 ‘ㅇ’으로, ‘ㅂ’은 같은 조음 위치(양순 음)에 속하는 ‘ㅁ’으로, ‘ㄷ’은 같은 조음 위치(치조음)에 속하는 ‘ㄴ’으로 바뀌었다.

⑤ 뒤 자음인 ‘ㅇ, ㄴ, ㄹ’은 조음 방식과 조음 위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11) <답> ①

단모음 체계표 아래의 (보기)에는 ‘내’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① ‘ㄹ’는 저모음(개모음), ‘ㄴ’는 중모음(반개모음)으로 ‘ㄹ’는 ‘ㄴ’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 혀의 높이를 낮춰서 발음해야 한다.

② ‘ㄹ’와 ‘ㄴ’는 둘 다 평순 모음이므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 발음할 필요가 없다.

③ ‘ㄹ’는 저모음(개모음)이고, ‘ㄴ’는 중모음(반개모음)이므로, ‘내’를 발음할 때의 혀의 높이는 ‘네’를 발음할 때보다 낮게 해야 한다.

④ ‘ㄹ’나 ‘ㄴ’ 모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는 전설 모음이다. ‘ㄴ’가 ‘ㄹ’보다 혀의 최고점이 높다.

⑤ ‘ㄹ’나 ‘ㄴ’의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치로 혀를 이동시켜야 한다.

반모음과 이중 모음

반모음은 모음과 자음의 중간적 성격의 음으로서 반자음이라고도 한다. 반모음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모음과 결합하여서만 쓰인다. 반모음과 모음이 결합된 음을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데, 반모음은 오로지 이중 모음을 위해서 있는 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어의 이중 모음은 반모음 ‘ㅣ’가 결합된 ‘ㅑ, ㅕ, ㅛ, ㅜ, ㅠ, ㅟ, ㅠ, ㅡ, ㅢ’와 반모음 ‘ㅜ/ ㅜ’가 결합된 ‘ㅑ, ㅕ, ㅟ, ㅠ, ㅡ’ 등이 있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의 교체 현상 중에서 다른 현상들(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과는 달리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음절 끝이라는 위치에 따라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ㄷ, ㅌ, ㅈ, ㅊ, ㅌ, ㅍ, ㅎ’을 대표하는 음운은 ‘ㄷ’이다. [예] 꽃[꼰]. 이와 달리 외래어 표기법에서 받침을 표기할 때는 ‘ㄷ’을 표기하지 않고 ‘ㅌ’을 표기한다. [예] 인터넨(X), 인터넷(O)

12) <답> ④

① 제시된 단어 중에서 ‘부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부엌]으로 발음된다. 즉, ‘ㄱ’이 ‘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된 단어 중에서 ‘웃’은 [웃], ‘빛’은 [빔]으로 발음된다. 즉 음절 끝 자음이 예사소리 ‘ㅌ, ㅊ’일 때도 바뀐다.

③ 제시된 단어 중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은 ‘부엌[부엌], 웃[웃], 빛[빔], 앞[압]’이다. 즉, 음운 변동이 일어나 ‘ㄱ, ㄷ, ㅂ’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뱃’은 [박]으로, ‘맡’은 [밌]으로 발음되는데, 이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적절하다.

⑤ 제시된 단어를 모두 발음해 보면 [부엌, 간, 웃, 빔, 달, 섬, 압, 창]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ㄴ, ㅂ, ㅍ, ㅇ’

이다.

13) <답> ②

① ㉠의 ‘밥하고’가 [바파고]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에 따른 것이다. ‘먹히다’가 [머키다]로 발음되는 것도 같은 현상이지만, ‘목걸이’가 [목꺼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따른 결과이다.

② ㉡의 ‘흙까지[흑까지]’에서 ‘흙’이 [흑]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른 것인데, ‘값싸다’가 [갑싸다]로, ‘닭똥’이 [닥똥]으로 발음되는 것 역시 이 현상에 따른 결과이다.

③ ㉢의 ‘잡고’가 [잡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따른 것이다. ‘굳세다’가 [굳세다]로 발음되는 것도 같은 현상에 따른 것이지만, ‘숨이불’이 [숨:니불]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에 따른 결과이다.

④ ㉣의 ‘듣는다’가 [든는다]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따른 것이다. ‘검내다’가 [검내다]로 발음되는 것도 같은 현상에 따른 것이지만, ‘맨입’이 [맨닙]으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에 따른 결과이다.

⑤ ㉤의 ‘칼날’이 [칼랄]로 발음되는 것은 유음화에 따른 것이다. ‘설날’이 [설:랄]로 발음되는 것도 같은 현상에 따른 것이지만, ‘잡히다’가 [자피다]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에 따른 결과이다.

14) <답> ④

A는 형식 형태소, B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 C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인 것을 의미한다.

㉠은 관형사로, 이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이다.

㉡은 어간으로, 이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은 조사로, 이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은 어미로, 이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은 명사로, 이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이다.

어간의 특이성

의존 형태소인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중 어간은 조사, 어미, 접사와 달리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에 속한다. 어간은 자립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15) <답> ④

용언이 파생어일 때는 용언의 기본형에서 접사와 어

미를 제외한 부분이 어근이고, 용언이 합성어일 때는 용언의 기본형에서 어미를 제외하고 어근의 결합형을 분석한 각각이 어근이다.

① ㉠에서 ‘-이-’는 접사에 해당한다. ㉡에서 ‘힘들-’은 ‘힘’과 ‘들-’로 분석할 수 있다. ㉢에서 ‘오가-’는 ‘오-’와 ‘가-’로 분석할 수 있다.

② ㉣에서 ‘-이-’는 접사에 해당한다. ㉤에서 ‘힘들-’은 ‘힘’과 ‘들-’로 분석할 수 있다.

③ ㉥에서 ‘힘들-’은 ‘힘’과 ‘들-’로 분석할 수 있다. ㉦에서 ‘오가-’는 ‘오-’와 ‘가-’로 분석할 수 있다.

④ ㉧의 ‘줄-’, ㉨의 ‘힘’과 ‘들-’, ㉩의 ‘오-’, ‘가-’ 모두 어근에 해당한다.

⑤ ㉪에서 ‘오가-’는 ‘오-’와 ‘가-’로 분석할 수 있다.

언어 단위로서의 문장, 어절, 단어, 형태소

예) • 문장: 나는 밥을 먹었다.

• 어절: 나는, 밥을, 먹었다

• 단어: 나, 는, 밥, 을, 먹었다

• 형태소: 나, 는, 밥, 을, 먹-, -었-, -다

16) <답> ⑤

①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주 하다’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멋있게 잘하다’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무언가를 많이 하다’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한과를 만드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한과장이’는 의미가 적절하게 통하는 새말이다.

접두사와 접미사의 차이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없으나,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것이 적지 않음.(예) ‘어른스럽다’의 ‘-스럽-’, ‘높이’의 ‘-이’, ‘쓰기’의 ‘-기’ 등)

17) <답> ⑤

(보기 1)에서는 단어의 형성 중 파생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파생어의 형성 결과를 분류하고 있다.

㉠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 없음.

㉡ 품사의 변화(동사 → 명사)

㉢ 문장 구조의 변화(능동 → 피동)

㉣ 품사와 문장 구조가 모두 변화

(보기 2)에서는 새로 제시된 파생어들을 (보기 1)의 ㉠~㉣에 맞추어 분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 ‘멋’의 품사는 명사이며 접미사 ‘-쟁이’에 의해 파생된 ‘멋쟁이’의 품사 역시 명사이다. 따라서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으므로 적절하다.

② ‘파랗다’의 품사는 형용사이며, 접두사 ‘새-’에 의해 파생된 ‘새파랗다’의 품사 역시 형용사이다. 따라서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으므로 적절하다.

③ ‘지우다’의 품사는 동사이거나, 접미사 ‘-개’가 붙어 파생된 ‘지우개’의 품사는 명사이다. 따라서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의 변화가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열다’는 ‘누가 무엇을 열다.’라는 능동문에서 사용되고, 접미사 ‘-리-’가 붙어 ‘열리다’로 파생되면 ‘무엇이 누군가에게 열리다.’라는 피동문으로 바뀌어 문장의 구조에 변화가 생기므로 적절하다.

⑤ ‘읽다’는 ‘누가 무엇을 읽다.’라는 능동문에서 사용되고, 접미사 ‘-히-’가 붙어 ‘읽히다’로 파생되면 ‘무엇이 누구에게 읽히다.’라는 피동문으로 바뀌거나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읽히다.’와 같이 사동문으로 바뀌어 문장 구조가 변하지만 ‘읽다’와 ‘읽히다’ 모두 동사이므로 품사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품사와 문장 구조가 모두 변하는 예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 <답> ②

단어와 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말의 형성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지니며, 이 점에서 단어와 차이가 있다. 합성어에는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된 통사적 합성어(예) ‘뛰어가다’)도 있고, 어간과 어간이 곧바로 연결된 비통사적 합성어(예) ‘오가다’)도 있다.

① 명사(‘꿈’)와 동사(‘꾸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② 어간(‘돌-’)과 어간(‘서-’)이 연결 어미(‘-아’)로 연결된 후 어미 ‘-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③ 접사(‘뒤-’)와 동사(‘섞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④ 명사(‘빛’)와 동사(‘나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⑤ 어간(‘오르-’)과 어간(‘내리-’)이 곧바로 연결된 후 어미 ‘-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기준

(가) 나는 사과를 깎아 먹었다. / 나는 사과를 깎아서 먹었다.

(나) 사냥개가 곰에게 달려들었다. / *사냥개가 곰에게 달려서 들었다. (*: 비문법적.)

(가)에서 ‘깎아 먹다’는 분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간에 ‘-서’와 같은 다른 요소가 결합할 수 있으나, (나)에서 ‘달려들다’는 분리 가능성이 없으므로 중간에 ‘-서’와 같은 다른 요소가 결합할 수 없다. 이로 보아, ‘깎아 먹다’는 구이고, ‘달려들다’는 합성어이다. 이렇듯 분리 가능성은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19) <답> ③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근은 형태나 의미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 원래 어근의 형태나 의미와 합성어의 형태나 의미를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① ‘어제’와 ‘오늘’이 결합하여 ‘어제오늘’이 되었으므로 형태 변화는 없는 반면, ‘어제오늘’은 ‘아주 최근이나 요 며칠 사이를 이르는 말.’이므로 의미 변화는 있다.

② ‘안’과 ‘밖’이 결합하여 ‘안팎’이 되었으므로 형태 변화가 있고, ‘사람의 안팎’으로 쓰일 경우에는 ‘마음속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의미 변화가 있다.

③ ‘말’과 ‘소’가 결합하여 ‘마소’가 되었으므로 형태 변화가 있는 반면, ‘말과 소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므로 의미 변화는 없다.

④ ‘세’와 ‘네’가 결합하여 ‘서너’가 되었으므로 형태 변화가 있는 반면, 의미 변화는 없다.

⑤ ‘솔’과 ‘나무’가 결합하여 ‘소나무’가 되었으므로 ‘솔’의 ‘ㄴ’이 탈락하여 형태 변화는 있는 반면, 의미 변화는 없다.

합성어가 만들어지기 전후를 비교하여 형태나 의미가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합성어가 만들어진 후 형태가 원래와 달라졌는지, 원래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는지 여부를 살핌으로써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듯 문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비교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사고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20) <답> ③

(보기 1)에서 ㉠의 ‘달리기’는 명사로서 어근 ‘달리-’에 파생 접미사 ‘-기’가 붙어 새로운 단어로 파생된 말이다. 관형어 ‘하는’의 수식을 받아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 ‘달리기’는 동사로서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하여 명사의 역할을 하며 부사어 ‘빨리’의 수식을 받고 있다. 명사질의 형태로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달리다’의 품사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활용 형태의 하나에 불과하다.

(보기 2)에서 (가)는 부사 ‘멋쩍게’의 수식을 받는 ‘웃다’가 명사형 어미 ‘-음’과 결합하여 명사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의 ‘웃음’은 ‘웃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활용 형태의 하나이며, 품사로는 동사에 해당한다.

(나)는 ‘추-’에 파생 접미사 ‘-(으)ㄴ’이 붙어 새로운 명사로 파생된 것으로,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것이다. 체언에 해당하는 말이므로 수식 성분도 부사어 ‘현란하게’가 아니라 관형어 ‘현란한’이다.

(다)는 ‘견-’에 파생 접미사 ‘-(으)ㄴ’이 붙어 새로운 명사로 파생된 것으로,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것이다. 체언에 해당하는 말이므로, 관형격 조사 ‘의’를 활용한 관형어 ‘학생들의’의 수식을 받는다.

(라)는 부사어 ‘잘’의 수식을 받는 ‘그리다’가 명사형 어미 ‘-(으)ㄴ’과 결합하여 명사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의 ‘그림’은 ‘그리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활용형 중 하나이며, 품사로는 동사에 해당한다.

21) <답> ③

품사 분류 기준 중 ‘형태’는 형태의 변화 여부를 말하므로 형용사 ‘깊다’와 동사 ‘모르다’는 가변어, 나머지는 불변어이다.

‘기능’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므로 ‘호수’, ‘강’, ‘누구’, ‘깊이’는 주어가 될 수 있는 체언이며, ‘깊다’와 ‘모르다’는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어이며, ‘가, 의, 는, 도’는 조사이므로 관계언이다.

‘의미’는 개별 단어가 갖는 의미가 아니라 품사 전체가 갖는 의미로서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 기준들에 따르면, ‘깊다’는 형용사, ‘모르다’는 동사, ‘호수, 강, 깊이’는 명사, ‘누구’는 대명사, ‘가, 의, 는, 도’는 조사로 분류된다.

- ① 형태로 볼 때, ‘깊다’는 가변어이고, ‘깊이’는 불변어이다.
- ②, ③ 기능으로 볼 때, ‘누구’는 ‘호수, 강, 깊이’와 마찬가지로 체언이며, ‘가, 의’는 ‘는, 도’와 마찬가지로 관계언이다.
- ④, ⑤ 의미로 볼 때, ‘깊다’는 형용사이고, ‘깊

이’는 명사이다. ‘호수, 강’은 모두 명사이고, ‘가, 의, 는, 도’는 모두 조사이다.

이 문항은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단계적으로 품사를 분류해 나가는 사고 과정과 연관이 있다. 국어의 9품사를 단순히 암기만 하지 말고 품사 분류 과정을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품사의 분류 과정에서 특히 가변어는 형태가 변하는 말로서 활용 현상을 보이는 용언을 가리킨다는 점, 조사와 어미 중에서 조사는 불변어이자 관계언이지만 어미는 단어가 아니므로 별도의 품사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2) <답> ①

①~⑤의 밑줄 친 명사는 모두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특정 대상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데, 이 중 자립 명사로 쓰이지 않는 것을 찾으려면 된다.

① ‘군데’는 ‘한 군데, 두 군데, 몇 군데’ 등에서처럼 ‘날날의 곳을 세는 단위.’의 의미를 지니는 의존 명사로 항상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

② ‘그릇을 비우다, 그릇을 씻다’ 등에서처럼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의 의미를 지니는 자립 명사 ‘그릇’이 ‘두’와 결합하여 단위성 의존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③ ‘덩어리가 지다, 우박이 덩어리로 쏟아진다.’ 등에서처럼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의 의미를 지니는 자립 명사 ‘덩어리’가 ‘세’와 결합하여 단위성 의존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숟가락으로 먹다, 숟가락을 놓다’ 등에서처럼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기구.’의 의미를 지니는 자립 명사 ‘숟가락’이 ‘몇’과 결합하여 단위성 의존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⑤ ‘발자국이 남다, 발자국을 따라가다.’ 등에서처럼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의 의미를 지니는 자립 명사 ‘발자국’이 ‘서너’와 결합하여 단위성 의존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23) <답> ③

(보기)에서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용언들 중, 하나는 규칙 활용을 하고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형이 같더라도 활용 양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다른 단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①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의 ‘낫다’와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뜻의 ‘낫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모두 ‘나아서’로 활용되어 어간 ‘낫-’의 ‘ㅅ’이 탈락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② ‘발라 놓거나 바느질한 것 따위가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쭈글해지다.’ 라는 뜻의 ‘울다’와 ‘기쁨, 슬픔 따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거나 아픔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다. 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다.’ 라는 뜻의 ‘울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어들이다. 이 용어들은 모두 ‘울어서’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한다.

③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 라는 뜻의 ‘굽다’는 ‘굽어서’로 활용되는 규칙활용을 하지만, ‘불에 익히다.’ 라는 뜻의 ‘굽다’는 ‘구워서’로 활용되어 어간 ‘굽-’의 ‘ㅂ’이 ‘우’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④ ‘미리 알려 주다.’ 라는 뜻의 ‘이르다’는 어간 ‘이르-’가 바뀌어 ‘일러’로 활용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라는 뜻의 ‘이르다’는 ‘이르러서’와 같이 어미 ‘-어/-아’가 ‘러’로 바뀌는 ‘러’ 불규칙 용언이다.

⑤ ‘불씨나 높은 열로 불이 붙어 번지거나 불꽃이 일어나다.’ 라는 뜻의 ‘타다’와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 라는 뜻의 ‘타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어들이다. 이 용어들은 모두 ‘타서’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한다.

24) <답> ①

①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는 낯선 사람이 사귀는 행위의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예문이다.

②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는 다른 사람과 ‘일 따위를 함께’하는 뜻을 드러내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예문이다.

③ (1)은 모두 격 조사로서의 의미를 보인 것이다. 보조사나 접속 조사로 보기 어렵다.

④ ‘과’의 유의어인 ‘하고’와 마찬가지로 ‘이랑’도 ‘닭{하고, 이랑} 오리는 동물이다.’, ‘책{하고, 이랑} 연필을 가져와라.’가 성립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앞말이 받침 있는 체언일 경우에는 ‘과’가 쓰이고, 앞말이 받침 없는 체언일 경우에는 ‘와’가 쓰인다. 예컨대 ‘말과 소’에서는 ‘과’가 쓰이지만 ‘소와 말’에서는 ‘와’가 쓰인다.

사전의 정보를 이용해서 조사 ‘과’의 문법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주어진 예문이 조사 ‘과’의 특정한 의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의미뿐 아니라 다른 의미에도 예문을 대응시켜 보도록 한다.

25) <답> ②

주어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으로, 그 형

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① ㉠과 ㉡은 ‘무엇이 어찌한다’의 문형에 해당하고, ㉢은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형에 해당하는데, 이때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이 곧 주어이다.

② ㉠과 달리 ㉡에서는 주체에 대한 높임을 표시하기 위해 ‘께서’라는 주격 조사를 사용하였다.

③ ㉣에서는 ‘나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④ ㉤에서는 ‘지하철’이라는 말이 자음으로 끝나기에 주격 조사로 ‘이’가 쓰였고, ㉢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모음으로 끝나기에 주격 조사로 ‘가’가 쓰였다.

⑤ ㉢에서는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로 쓰이고 있다.

26) <답> ⑤

일반적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과 달리 관형어, 부사어는 생략 가능하며,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① 주어인 ‘희선이는’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이다.

② ‘빨간’은 ‘장미꽃’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므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장미꽃이’는 주어이므로 문장 성립에 필요하다.

③ ‘먹었다’는 타동사여서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피었다’는 자동사여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관형어인 ‘맛있는’과 부사어인 ‘활짝’은 생략 가능한 것으로서,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⑤ ‘먹었다’는 주어 ‘희선이는’과 목적어 ‘빵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고, ‘피었다’는 주어 ‘장미꽃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서술어의 자릿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장에서 해당 성분이 필수적인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가려내려면 그 성분이 생략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면 된다.

사전을 활용하여 서술어의 자릿수 파악하기

사전의 문형 정보를 파악하면 그 단어의 자릿수를 추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아를 양자로 삼다’라고 할 때의 ‘삼다’를 사전에서 찾으면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성분을 알려 주는 [...을 ...으로]라는 문형 정보가 나온다. 이로 미루어 ‘삼다’는 세 자리 서술어임

을 알 수 있다.

27) <답> ③

① ㉠에서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 ‘먹었다’의 대상인 ‘빵을’이, ㉡에서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 ‘보다’의 대상인 ‘내 모습을’이 목적어이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는 목적어가 서술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지만, ㉡에서는 목적어가 주어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때 목적어의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는 목적어 ‘빵을’이 있으며, ㉡에도 목적어 ‘우유나’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에는 목적어가 사용되었으나, ㉡은 주성분이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자음으로 끝난 ‘빵’ 뒤에서 ‘을’이 쓰이고, ㉡은 모음으로 끝난 ‘유’ 뒤에서 ‘를’이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목적격 조사와 보조사 서술어의 동작 대상에는, ㉠과 같이 목적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붙기도 하고, ㉡과 같이 보조사만 붙기도 한다.

㉠ 난 너만을 바라볼 거야.

㉡ 난 너만 바라볼 거야.

28) <답> ①

부사어는 위치 이동이라든가 수식의 대상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① ㉠에서 ‘엄마와’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아니라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② ㉡에서 부정의 의미를 갖는 ‘안’이라는 부사어는 그 말이 수식하는 서술어 앞으로 위치가 고정되었다.

③ ㉢에서 ‘아이에게’라는 부사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부사어이다.

④ ㉣에서 ‘겨우’라는 부사어는 앞 문장에서는 ‘하나’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뒷 문장에서는 용언을 수식한다.

⑤ ㉤에서 ‘및’은 단어를 이어 주는 부사어인데, 위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

성분 부사어는 문장의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고,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예) 비행기가 높이 날아간다. (높이: 성분 부사어)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제발: 문장 부사어)